

필리핀-베트남 거주 한국 이주 배경 아동 현황 파악을 위한 출장

1. 출장 개요

□ 목적

- 필리핀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국 관련 이주 배경 아동의 현황 및 면접 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지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 출장자

- 신윤정 연구위원 (※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부연구위원, 최서리 부연구위원 동반 출장)

□ 출장 기간: 2018년 6월 24일~29일 (5박 6일)

○ 국가별 상세 일정

- 필리핀

- 회의 일시: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9:00 ~ 18:00
- 회의 장소: 필리핀 마닐라 스칼라브리니 이주연구센터

〈표 1〉 현지 방문 상세일정: 필리핀

시간	주요 내용	비고
9:00 ~ 11:15	연구진 회의	필리핀 연구진 (5명) 및 한국 연구진 (3명)
11:30 ~ 13:30	오찬 회의	11:30 전문가 도착 전문가 및 연구진 참석
13:30 ~ 14:30	연구 소개 발표	환영인사 및 소개, 연구 개요 발표(신윤정), 전문가 자기소개 및 기관 역할 소개
14:30 ~ 15:30	전문가 토론	〈표 2〉 명단 참조 Marla Asis 회의 주제
16:00 ~ 16:30	종합 토론	
17:00 ~ 18:00	연구진 회의	

〈표 2〉 전문가 회의 참석자 명단: 필리핀

순번	이름	소속
1	Maruja ASIS	Scalabrini Migration Center
2	Graziano Battistella	Scalabrini Migration Center
3	Kimberly JUANILLO	Scalabrini Migration Center
4	Ivy MIRAVALLES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5	Rommel DOMINGO	Korean Children's Association, Inc
6	Amparita STA. MARIA	Ateneo Law School
7	Carmelita NUQUI	Development Action for Women Network
8	Ana CABRERA	Council for the Welfare of Children
9	Florence SAPITER	Kopino Children's Association, INC.
10	이태은	Korean Embassy in the Philippines

○ 베트남

- 전문가 회의
 - 회의 일시: 2018년 6월 27일, 9:00 ~ 18:00
 - 회의 장소: 베트남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12층 회의실
- 베트남 현지 학부모 심층 면접 조사
 - 회의 일시: 2018년 6월 28일: 9:00~12:00
 - 회의 장소: 인터뷰 대상자 가정 방문
- 베트남 가족과 젠더 연구소 국제 컨퍼런스 참석
 - 회의 일시: 2018년 6월 28일: 13:00~18:00
 - 회의 장소: 베트남 사회과학원 대회의실

〈표 3〉 현지 방문 상세일정: 베트남

날짜	시간	주요 내용	비고
6월 27일	9:00 ~ 9:30	동북아연구원 원장 인사	Tran Quang Minh
	9:30 ~ 10:30	“한국의 외국인·다문화 정책 현황과 이슈”	신윤정 발표
	10: 30 ~ 12:00	전문가 토론	〈표 5〉 전문가 참조
	12:00 ~ 14:00	오찬 회의	
	14:00 ~ 18:00	연구 진행 상황 논의	베트남 및 한국 연구진
6월 28일	9:00 ~ 12:00	인터뷰 대상자 면접	베트남 연구진 및 신윤정
	13:00~15:00	국제 컨퍼런스 참석	컨퍼런스 참석자

〈표 4〉 전문가 회의 참석자 명단: 베트남

순번	성명	소속
1	정희진 영사	주베트남 한국 대사관
2	Nguyen Thi Nga 부국장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아동국
3	Nguyen Huu Minh 교수	VASS 성과 가족연구소 전 소장
4	Nguyen Duc Vinh 박사	VASS 사회학 연구소 부소장
5	Pham Hong Thai 교수	VASS 동북아시아 연구소 소장 대행
6	Pham Quy Long 교수	VASS 동북아시아 연구소 부소장
7	Nguyen Thi Tham	VASS 동북아시아 연구소 한국연구센터장
8	Nguyen Thi Hang	하노이 한국 국제학교 다문화 학부모 대표

2. 필리핀 방문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1) “코피노”에 대한 배경

□ 필리핀의 혼혈 가족의 역사적 배경

- 필리핀에서 다인종으로 구성된 가족과 아동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혼혈인을 “mestizo” 혹은 “mestiza” 라고 불렀음
 - 예: 필리핀인과 스페인·미국·중국인 간의 혼혈 가족 및 혼혈 아동
- 지난 50년 동안 나타나고 있는 필리핀 혼혈 가족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니케이진(Nikkeijin)”: 2차 세계 대전 이전에 필리핀으로 이주한 일본인 후손
 - 필리핀계 미국인: 필리핀 미군기지 Clark Airbase (Angeles City), Subic Bay (Olongapo City) 중심으로 거주, 이 두 지역은 베트남 전쟁 시 미군 기지로 활용되었음
 - 1980년대 이후 “New Nikkeijin” (일본인과 필리핀인 간의 자녀) 대두
 - 1990년대 이후부터 한국인과 필리핀인 간의 자녀인 “코피노(Kopino)” 아동이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하였음. 이는 한국인 기업의 필리핀 진출, 필리핀 여행객 및 어학 연수 등 유학생의 증가에 따른 현상임

□ 코피노에 대한 정의

- 필리핀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① 필리핀, ② 한국 혹은 ③ 필리핀과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아동일 수 있음
 - 그러나 코피노는 대부분 필리핀에서 태어났거나 한국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필리핀으로 돌아온 필리핀인과 한국인 간에 태어난 아동을 말함
 - “코피노는 한국인 아버지 혹은 한국인 어머니 등 한국계 혈통을 가진 필리핀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Bae, 2014: 107p)
 - “Korean-Filipino”은 받은 한국계 그리고 받은 필리핀계 사람이거나 한국계 부모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태어나서 필리핀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Choi, 2010)
 - 한국에서 필리핀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은 “코피노”라고 불리지 않으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하나로만 간주되고 있음
 - 이러한 관찰 결과, “코피노”라는 명칭은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계 아동에 대한 낙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도 보임 (연구진 의견)

□ 필리핀에서 코피노의 법적·사회적 지위 현황

-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는 필리핀 국적을 가질 수 있음. 이는 적어도 부모 중 일방이 필리핀인이기 때문임
- 필리핀 국적법은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 필리핀 국적자로서 코피노 아동은 필리핀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코피노가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음
- 코피노의 엄마인 필리핀 여성은 한부모 복지법(Solo Parents Welfare Act) 하에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개발부가 취약한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교육에 대한 지원도 포함됨

2) 코피노 아동 심층 면접 사례

□ 3명의 코피노 아동 심층 면접 조사 결과 및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사례 1〉

Janet은 Aika의 한국인 생부를 2013년에 Lapu-lapu City에 위치한 한국인 가게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을 때 만났다. Janet은 Aika를 임신했을 때 Aika 한국인 생부가 이미 결혼한 사람인 줄 알았다. Aika 생부는 Janet이 Aika를 임신한지 3개월 되는데 마닐라를 떠났는데 아마 직장을 찾아서 떠났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Aika가 4살이 될 때 까지 Janet의 부모와 함께 살았다. 지금은 Janet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으며 이 남자가 Aika를 부양하고 있으며 새로운 남자 사이에서 Janet은 자녀를 한명 더 낳았다. 한국 상점은 Janet에게 돈을 빌려 주고 빚을 갚는데 도와 주었다.

Janet은 동네 사람을 통하여 ECPAT 이라는 단체가 코피노 가족을 도와주는 것을 알게 되었다. ECPAT은 Aika를 등록하고 생부를 찾는 것을 도와주고 있으며 매2개월에 PHP 1,500을 지원받고 있다.

Janet이 필리핀 정부로부터 바라는 것은 생계 지원, 한국인 생부로 부터 인지를 받는 것, 다문화 아동 협회를 만들어서 한국인 아버지의 문화를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바라는 것은 코피노 아동에게 한국인 국적을 부여하는 것,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한국인 생부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사례 2〉

코피노 Siony는 20세 IT 분야의 대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며 68세 이모 할머니가 돌보고 있다. Siony 부모는 결혼한 부부였으며 Siony가 2개월 되었을 때 한국인 아버지가 사라졌다. Siony가 15세 될 때까지는 필리핀 엄마가 키웠고 그 이후에 엄마가 떠나고 배다른 동생인 Janet가 함께 이모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이모 할머니와 이모부 할아버지가 Siony와 Janet을 키웠으며 이모 할머니의 딸이 교육비를 지원하였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이모 할머니 아들들도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Siony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떤 NGO 단체가 코피노 아동을 돕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NGO 단체는 Kopino 아동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Siony는 주거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다만 아버지를 찾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다. Siony가 19세 되는 때 어떤 변호사와 면담을 하였는데 이 변호사는 아버지를 찾아 주는 서류에 사인을 하는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Siony는 ECPAT이 한국인 아버지를 찾아주는 것을 도와 주고 있다.

이모 할머니는 자신과 남편이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 Siony 자매를 더 이상 돌봐 주기 어려운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Siony는 자신이 코피노라고 하여 차별받은 적은 없고 이모 할머니 가족을 매우 가깝게 생각하고 있다. Siony는 훗날 London에 가서 일하고 싶으며 건축학을 전공하고 싶어한다.

〈사례 3〉

Aileen은 24세 간호학 전공으로 현재 일하고 있으며 2살된 아들과 함께 Cebu City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Aileen과 한국인 남자는 처음에는 친구로 만났다고 나중에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다. 한국인 남자 친구가 Aileen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둘의 관계는 끝나고 남자로부터 마지막 소식을 들은 것은 2017년 10월이었다. 한국 남자가 졸업할 때 남자의 한국 부모와 와서 아이를 만났다.

Aileen은 아이가 젖을 떼고 나서 다시 일하기 시작하였으며 일할 때 Aileen의 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Aileen에게 재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람은 가족들 뿐이며 NGO로부터 도움은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로부터 바라는 것은 코피노 가족을 도와주는 NGO로 부터의 도움이다. 한국 정부로부터 받고 싶은 도움은 재정적 지원과 교육에 대한 지원,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 지원, 문화 교육이다. 코피노 아동이 한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가족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 한국인 아버지와 아들 간에 만남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국인 커뮤니티로부터 받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아들이 성장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분야에서 공부를 마치기를 바라고 있다.

□ 세가지 사례가 일반화되기는 어렵지만 제시해 주고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코피노 아동은 어느 정도 심각한 파트너 관계의 커플에서 태어난 아동들이며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과 한국 남성 간에 낳은 아동은 아님. 세 가지 사례 중 하나는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 낳은 자녀였음
- 둘째, 필리핀 여성의 친정 부모가 재정적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음
- 셋째, 세 경우 모두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인지”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음

3) 코피노 아동을 위한 NGO 활동 현황

□ 필리핀에서 코피노 아동을 돕는 NGO 활동은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KCAI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쉼터, 장학금, 친모에 대한 생계비 지원,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http://kopino.org/page/about-kcai/>)
-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Inc.가 Angeles City(앙헬라 시)에 2013년 설립되었으며 또 다른 지부가 Baguio에 2014년 설립되었음, 장학금, 생계비, 학습 지원, 문화 프로그램 제공
 - “필리핀을 시작으로 하여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을 지원하고 있음. 특히,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계 혼혈아동 중에서 출생 배경으로 인하여 차별과 낙인을 받고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러한 아동들이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문화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동 기관은 이러한 아동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양질을 생활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출처: <https://eng.eastern.or.kr/about-us/our-work/>)
- ECPAT Philippines은 1991년에 아동들의 성매매, 포르노그래피, 성산업을 위한 아동 매매를 막기 위해 설립한 단체이며 현재는 ECPAT Korea를 통해서

코피노 아동의 이슈와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음

- 주요 프로그램으로 코피노 아동의 등록, 한국인 아버지를 찾아주기 위한 코피노 가족 상담, 코피노 가족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음

○ 코피노 가족을 발굴하기 위한 NGO 들의 노력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앙헬라 시 사회복지개발 사무실(Angeles City Social Welfare and Development Office)과 동부 사회복지협회 앙헬라 지부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Angeles)가 코피노 발굴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많이 발견하지는 못했음

- 오직 2건의 코피노 가족이 앙헬라 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가 코피노 가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나 앙헬라 시 내에서 100건 이하의 코피노 가족 만을 발견하였음. 이 중에서 37명만이 등록하였고 17명이 프로그램을 제공받았음. 그러나 이 조사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필리핀 여성의 코피노 자녀를 주로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Baguio 시에 있는 Eastern Social Welfare Society 역시 많은 코피노 가족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앙헬라 시에 있는 코피노 아동들은 따돌림 혹은 차별을 받지 않는데 그 이유는 필리핀에서 한부모 가족은 예외적인 가족 유형이 아니기 때문이며 이는 이전부터 미국계 필리핀 아동들도 차별을 받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임

- 코피노 아동에 대한 엄마와 주 양육자의 걱정은 자녀에 대한 교육임

4) 일본의 사례

○ 필리핀과 일본에 설립된 단체들이 두 국가를 넘나들면서 일본인 아버지를 찾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 일본; 일본계 필리핀 아동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http://www.jfcnet.org/news/other/542/>)가 1994년에 설립되었음 (기타 다른 조직도 있음)

- 필리핀: Batis, Development Action for Women Network(DAWN), Maligaya Houuse (기타 다른 조직도 있음)

〈아버지 인지에 대한 일본의 법률 개정〉

과거에 일본 국적법은 아동이 태어났을 때 부모 중 한명이 일본인이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음. 결혼하지 않은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낳은 아동은 아동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버지가 법적으로 인지하지 않는 경우 출생과 함께 일본인 국적을 가질 수 없었음. 아버지가 자식이 태어난 이후에 인지를 한다면 이는 자녀가 태어날 당시 법적인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되었음. 자녀가 20세 되기 이전에 결혼을 한다면 일본인 국적인 자녀에게 부여되었음

2008년 12월에 국적법이 개정되어 일본계 코피노 아동이 일본 국적을 받게되는 것이 이전 보다 용이하게 되었음. 2008년 6월 대법원은 이러한 사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부모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자녀 출생 이후에 인지를 하면 그 아동에게 일본인 국적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지금까지 약 10만~20만 일본계 코피노 아동이 아버지로부터 받아들여 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7년에 DAWN과 Center for Japanese-Filipino Children's Assistance가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계 필리핀 아동의 등록을 위한 캠페인을 하였음: 등록을 통해 아동의 수, 현황, 욕구 등을 파악하려고 하였음. 그 결과 대부분 도시 지역(Mel Nuqui)에 거주하는 5,000명의 아동이 등록된 결과가 나타났음

- DAWN의 아버지를 찾고 지원을 구한 사례를 모범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DAWN의 프로그램 중의 하나는 일본계 코피노 아동을 일본과 연계해 주는 것으로서 매년 공연장 투어, 대학과의 연계, 자원 봉사 활동을 하고 있음

○ 일본인 아버지를 찾는 전략

- 자발적인 인지 (한계가 있음)
- 가정법원 혹은 지역법원의 중재를 통한 법적인 활동; 엄마와 아동이 일본으로 와야하고 법적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DNA 테스트를 해야 하는 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은 다른 수단을 강구한 후에 맨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임

5) 코피노와 관련된 쟁점 사항들

- 코피노 명칭의 적절성: 코피노라는 용어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계 필리핀 아동을 특정하여 부르는 이름인지? 한국계 필리핀 아동에 대한 보다 많은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얼마나 많은 코피노 혹은 한국계 필리핀 아동이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지? (10,000 명이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숫자). 필리핀에 거주하는 한국계 필리핀 아동을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지?
 - 코피노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 보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함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에게 무슨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정부 부처가 코피노 관련 업무를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코피노 아동에 대한 법적인 인지가 한국에서 가능한지?
 - 코피노 아동에 대해 한국인 아버지의 인지를 얻어내는 과정은 복잡하고 긴 절차를 요구함. 그리고 이러한 인지 과정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음
 - 한국인 아버지를 찾고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윤리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사진을 웹사이트에 올리는 행동 등은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지양해야 할 것임
 - 한국인 아버지가 한국의 가정과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상담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필리핀 정부와 한국 정부, 학계, 시민 사회 단체, 미디어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어떠한 국제적인 협력 방안이 가능할 것인지?
 -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코피노에 대한 지원은 필리핀과 한국의 NGO 지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아버지를 찾아 주는 방법, 아버지와 코피노 아동이 서로 연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은 인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코피노에 대한 조사는 코피노 숫자를 대략 추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

이며 숨겨진 많은 코피노 가족이 자신을 드러내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러한 조사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코피노를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NGO의 지원을 받아 대상자 섭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베트남 방문에서의 주요 논의 사항

가. 베트남 이주 배경 아동의 유형

□ 한국계 베트남 아동은 크게 거주지(한국 혹은 베트남)와 부모의 혼인 여부(법적 혼인 혹은 다양한 가족)에 따라 6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 서로 다른 차별적인 이슈에 직면하고 있음

혼인 여부	거주지		
		베트남	한국
	법적 결혼	③ 한-베 가족	① 다문화 가족
	다양한 가족	④ 해체된 한-베 가족 ⑤ 귀환 이주민 자녀 ⑥ 순환 이주민 자녀	② 한부모 가족

○ 다문화 가족의 자녀: 한국의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

○ 한부모 가족의 자녀 : 한국의 한부모 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

○ 한-베 가족의 자녀

-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결혼하여 낳은 자녀
- 한국어 교육 등을 포함한 교육 지원 욕구가 강하나 국내 거주 다문화 가족에 비하여 받고 있는 지원 수준이 미비한 실정

○ 해체된 한-베 가족

- 베트남에서 결혼한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중 베트남 현지에서 이혼·별거·사별을 경험하여 베트남 여성에 의해 양육되고 있는 자녀 / 베트남 현지 동거 관계에 있는 한국인 남성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녀

- 한국과 단절된 채 베트남 여성 혼자 오롯이 자녀를 돌봐야 함

○ 귀환 이주민 자녀

- 한국 거주 베트남 결혼 이민자 여성이 한국에서 이혼 및 별거 등을 경험하고 한국인 아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귀환한 경우
- 베트남에서의 법적 지위, 건강한 양육과 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순환 이주민 자녀

- 한국 거주 결혼 이민자 자녀로서 양육 부담 등의 이유로 베트남 친인척 (주로 친정 가족)에게 맡겨서 키워지고 있음
- 친인척에 의해 적절한 양육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음

나. 귀환/순환 이주민 자녀의 이슈

- 귀환 이주민 자녀들은 주로 초기에 결혼 이민자 여성이 많았던 남부 지역 (컨터 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음

- 베트남 결혼 이민자 여성이 남편과의 이혼 및 별거 혹은 한국 가족과의 문제가 있는 경우 한국인 자녀를 데리고 베트남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

- 이때 재혼하거나 다른 경로로 다른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자녀들이 친정 부모들에게 남겨짐 (이러한 아동 수는 수백명에 달함)

- 아동들을 돌봐주는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로 부터 양질의 양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 이민자 자녀는 국적이 없고 체류자격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음.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이혼한 여성의 전 남편이 “허락서”를 써주어야 베트남 정부에서 아동에게 베트남 국적을 부여할 수 있는데 많은 경우 “허락서”가 없어서 체류 자격이 애매한 상태로 남아 있음

- 귀환 이주자 여성들은 돌아 올 때 이혼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고 돌아오는 경

우가 많음. 법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돌아오거나 돌아와서 본인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고 있어 정확한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 등록의 부재로 인하여 귀환 이주자 여성의 정확한 규모 및 실태 파악이 어렵고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데도 한계가 있음

- 정책적인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귀환 이주자 여성과 그 자녀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부분은 베트남 정부와 협조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귀환 이주민 자녀들의 언어 문제가 심각하여 한국어는 잘 하지만 베트남어를 하지 못해 의사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한국국제학교 학비가 비싸고 또 대부분 귀환 이주민 자녀들은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학비가 저렴한 베트남 현지 학교로 보내짐

○ 한국 생활을 경험하였던 귀환 이주민 자녀들은 베트남 말을 하지 못해 베트남 현지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공부도 잘 따라가지 못함

○ 아동의 나이가 많을수록 적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크며 베트남 현지 학교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 비싼 학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제 학교로 옮기기도 함

나. 한-베 가족 자녀의 이슈

□ 취학전 교육 현황

○ 한-베 가족 아동의 많은 수가 한국 유치원을 다니고 있지 않아 초등학교 입학 준비 및 조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치원에서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아동 발달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한-베 가족 아동에 대한 취학 전 교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하노이 소재 한국 유치원은 4곳이 있는데 모두 한국인 민간이 운영하고 있으며 학비가 1개월에 4백불 임. 여기에 생일 파티, 현장 학습비 등 추가 비용도 많이 들어감 (한달에 7백불이 드는 경우도 있음)

- 한-베 가족 자녀가 한국 유치원을 다니지 못하는 이유는 학비가 비싸기 때문임
- 코인(여가부 지원)이 운영하는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질적인 수준이 많이 떨어짐
- 한국인 아빠 모임에서 바자회를 통해 모금을 하여 협동 조합식으로 베트남 유치원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역부족인 상황

○ 한국 정부가 베트남에 한-베 유치원을 설립하여 저렴한 학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한국에 사는 한-베 가족들은 유치원 학비 및 양육 수당을 포함하여 다양한 다문화 프로그램을 지원 받는데, 베트남에 사는 한-베 가족 자녀들은 어떠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음. 한국 거주 다문화 가족과 외국 현지 거주 다문화 가족 간의 지원 격차가 매우 큼
- 취학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한-베 가족 아동들이 초중고등학교에 잘 다니게 되고 한국 대학을 다닐 기회도 높아져 한국과 국제 사회에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큼

□ 초중고등학교 교육 현황

○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는 다문화학생들이 177명 있으며 이는 전체 학생 중 9.8%에 달하는 비중임. 164명의 한-베 가족 아동이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음. 164명 한-베 가족 아동 중 142명이 초등학생이며 나머지는 중학생임

- 한국국제학교 학비는 매달 1,000불에 달하는 정도로 비싸서 한국국제학교에 갈 수 있는 한베 가족 자녀는 많지 않음

○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 다문화담당 선생님이 계시고 서예, 태권도 등 무료 강습도 제공하지만 한-베 가족 아동의 학습 지원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음

- 베트남 전국에 한글 학교가 13개, 하노이에 3개, 문화원이 한 두개 있지만 대부분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대상 한글 학교가 많이

부족한 상황임

- 지식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한-베 가족은 자녀를 한국국제학교에 보내는데 자녀가 한국인 아동으로부터 차별받는 경우 자녀를 다른 일반 국제 학교에 보내거나 제3국으로 유학 보냄
 - 한국-베트남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을 다른 국가로 유출시켜 버리는 부정적인 결과 초래
-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국제학교가 아닌 베트남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음
 - 베트남에서는 중학교까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베트남 현지 학교에 보내는 경우 교육비 걱정은 안해도 됨
 -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아인 경우 한국 국적을 유지하려면 군대에 가야하는데 베트남 현지 학교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기가 어렵고 또 열악한 교육 현지 교육 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경우가 많음
- 한국인 남편과 아내의 학식,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자녀의 성장과 미래에 대한 식견이 다름

다. 베트남과 한국 정부의 정책

- 베트남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아동이 18세 되기 전까지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베트남에서 출생하는 경우 베트남 현지와 한국 대사관에 신고하여 베트남 국적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나, 한국에서 출생하는 경우 한국 국적만 취득이 가능하고 베트남 국적 취득은 어려운 상황임
- 베트남에서 한국 국적으로만 신고하는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하며 3개월에 한 번씩 갱신해야 함. 이것이 불편하여 이중 국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음. 최근 외국인 등록의 갱신이 1년 혹은 3년에 한번 갱신으로 변경되었음
- 베트남의 2010년 아동법은 국회에 비준되어 2012년 1월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있음. 베트남 아동법에서 아동의 정의는 16세까지 이며 아동법의 대상은 베트남을 포함하여 모든 나라의 아동임

○ 개정된 아동법은 기존의 10가지 아동권에서 UN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25가지 아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여성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이 베트남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한 바 있음

- 관련된 주요 네가지 정책으로 학습기회 제공, 취업 제공, 건강 보장 제공, 지원 서비스 제공이 포함됨

- 교육부, 사회보훈부, 사법부가 협조하여 지원 정책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아동법의 개정으로 체류자격이 불분명한 아동도 학교에서 받아 주는 것으로 변경되어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가능해졌음

- 법 개정 이전에는 귀환 이주민 자녀들이 서류가 없어서 학교에서 아동들을 받아주지 않아 학교에 들어가기 어려웠음

- 학교에서 받아주기는 하지만 여전히 성적표나 학력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한국에서의 학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

○ 베트남 정부의 법 개정예 따라 국적과 상관없이 교육과 의료 등을 제공하는 것이 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황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됨

□ 최근 한국에서 국제 결혼이 감소하고 있지만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 여성은 매년 5천~6천명이 오고 있으며 결혼 이주 여성 중에서 베트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한국 정부는 결혼 과정에서 베트남 여성들이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결혼중개업체의 중개 행위 가운데 인권 침해가 없는지 조사, 관리, 감독하고 있음

○ 국제 결혼을 한 여성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노이, 호치민, 킨터 세 곳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담은 웰컴북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음

□ 한국의 다문화 지원 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서 특히 다문화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이혼, 폭력, 강간 등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

○ 그러나 다문화 가족이 문제가 있는 경우 모두 베트남 여성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은 베트남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한국의 정책이 베트남 보다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며 베트남에게 유용한 함의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신남방정책 대상이며 경제적 교류에서 우선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사돈 국가임. 한-베 가족의 자녀들은 두 국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한-베 가족의 자녀의 법적 지위와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임

□ 베트남은 한국보다 발전 수준이 낮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것 만큼 베트남 정부가 한-베 아동에 대해 지원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베트남의 한-베 아동 지원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도움 혹은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도움이 필요함

라. 한-베 가족의 생활 현황

□ 베트남 거주 한국 남성 주재원 현황

○ 한국에서 취업이 어려운 남성들이 한국에 본사가 없는 베트남 지점에 취업되어 오는데 이들 중에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많음

- 이들은 베트남에 오면 한국과 베트남을 모두 다 잘 알기 때문에 한국 보다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삼성 혹은 엘지에서 파견 나온 주재원들은 현지 회사로부터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 받지만 현지 고용된 한국인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주재원들

과 차별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음

- 현지 고용 한국인들도 재산세 등 일정 부분의 세금을 한국에 내고 있는데 유치원 학비, 양육 수당, 교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제기하고 있음 (유치원 학비의 50%라도 절감해 주는 것을 바라고 있음)
- 한국 현실에서 다문화 가족 아동은 차별받고 살 가능성이 크고 본인도 취업하기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에 살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음. 이때 자녀의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게 하기도 함
-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한-베 가족들은 보육비, 교육비, 다문화 가족 지원이 제공되고 있는 한국으로 이주할 것을 고려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 남편의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저하고 있음

○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는 이유라고 반드시 볼 수 없지만 외국인이 부동산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위장 결혼 혹은 결혼을 통하여 아내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고 투자하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부부들도 헤어지지 않고 잘 살고 있으며 베트남 여성들은 행복해 하는데 베트남 남성과 결혼하면 이런 좋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한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

○ 베트남 사람들은 아이를 좋아하고 자녀가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베트남 여성은 결혼할 때 한국 남성이 부자라고 생각하여 자녀를 많이 낳아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평균적으로 3~4명)

- 한국 수준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한국인 자녀와 경쟁하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없음

○ 한국인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은 일은 안하고 남편 돈 때문에 결혼했다는 이미지가 있음

- 한-베 아동들은 상층 신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도 이러한 신분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임 (외출할 때도 오토바이가 아닌 승용

차로 이동). 친척들이 한베 가족에게 기대하는 수준도 높음

□ 다양한 유형의 한-베 가족

- 결혼하지 않고 동거 관계로 자녀를 낳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는 베트남에서 잘 살고 있으며 아직 큰 문제로 이슈화 되지는 않았음
- 하지만, 동거남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남편과 이혼한 경우 자녀들은 거의 한국과 단절되는 상황임